

‘서예’ 한국의 신서체로 태어났다

騷 少 가 가
 日 B B b
 休 家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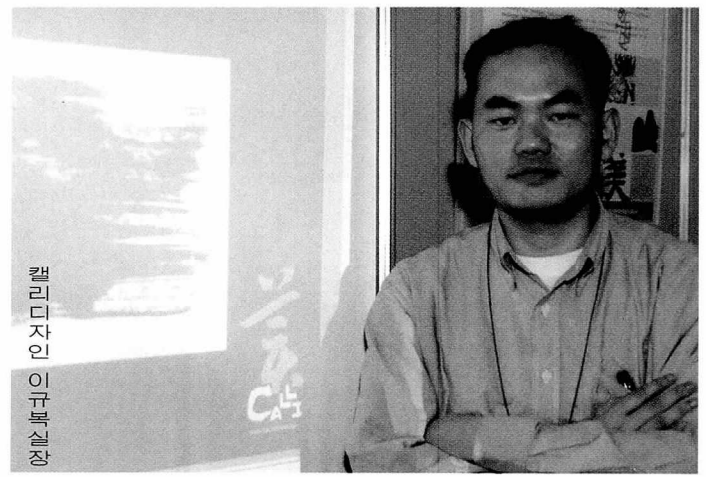
CALLIDESIGN
www.callidesign.co.kr



아날로그 예술의 대명사 서예를 이제 디지털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2년 11월 설립된 캘리디자인(www.callidesign.co.kr)이 한글, 한문, 전서, 예서, 초서 등 총 12,000여자를 테이터 베이스화한 '캘리디자인샵'을 출시하고 상용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사실 서예(calligraphy)는 가장 오래된 동양의 전통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에서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디지털화 및 산업화에서 디지털화 변환이 어려웠던 산업현장에서 소홀히 여겨졌던 장르였다. 그런 이유로 인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에게도 서예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르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벽'이 창조할 수 있는 모든 효과를 디지털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원광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캘리디자인샵'이 서예의 디지털화 작업을 이룬 것이다.

서예를 디지털과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윤디자인



캘리디자인서 디지털 상품화시력

연구소에서 2001년 선보인 '필'에서 선행되었다. 하지만 '필'과 '캘리디자인'의 서체는 분명 차이가 있다.

전자가 서체의 입장에서 서예의 기능을 빌렸다면 후자는 서예의 입장에서 서체에 접근했다.

즉 윤디자인연구소의 '필'은 서체의 기능적인 측면을 살리기 위해 초성, 중성, 종성 내지는 초성, 중성 등 글자의 구조에 서예의 기능을 입혔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캘리디자인샵'은 서예를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접근해서 글자판에서 필요로 하는 글자를 입력한 다음 나타난 글자 중 필요한 글자 즉, 이미지를 찾아 입력해야 한다.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화된 디자인 노력 덕택에 '캘리디자인 샵'에서 만나는 한글과 전서, 예서, 행서, 초서, 문인화, 묵화, 터치 등은 묵이 가지는 섬세한 느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묵의 향기가 디지털로 옮겨진 데는 이규복 디자인 실장(33)의 노력을 빼 놓을 수 없다.

1997년 원광대학교 서예학과를 졸업하고 99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3년 현재 전북대학교 중문과 박사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이 실장은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한국서예사' (2000, 이화문화출판사), '서예의 이해' (2002, 이화문화출판사) 등 서예 관련 서적을 집필한 실력가이다.

이론 뿐 아니라 실천에서도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비달사순' 광고에서 여인의 머리 결로 그려지는 '美'자가 이 실장의 작품이다.

이규복 실장은 "특히 한문의 전서 초서는 현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극히 드문 상황에서 캘리디자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서예의 문화 산업화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까지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디자인에서 만날 수 있는 서예 디자인은 한글 2,500자, 영문 4종 104자, 문인화, 묵화, 터치 등 50종, 한문 갑골문자 600자, 초서로 된 천자문 1,000자, 인터넷상에서 쓰이고 있는 한자인 예서 4,880자, 행서 4,880자 등 14,014자이다.

다소 부족해 보이는 한글 2,500자는 추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물론 업그레이드 이전이라도 주문할 글자의 형태로 필요한 디자인을 주문할 수 있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일본에서는 이미 캘리그래피 디자인이 생활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지금에서야 디자인 분야(CI/BI, 회장, 상품디자인, 영화포스터)등에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미개발 시장이다. 그나마 전문 캘리그래피 디자인 및 디자이너가 소수에 불과해 이를 원활하게 이용하기는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캘리디자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누구나 쉽게 캘리그래피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자나 문인화, 터치 등을 온라인에서 검색,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바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CI/BI, 웹디자인 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간판이나 명함 디자인 등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캘리디자인은 서예폰트(한글, 영어, 한문)의 개발로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실장은 "동양의 신비주의를 잘 간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서예이다. 우리에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옛 문화가 서양인들에게는 하나의 신선한 문화충격으로 다가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중국이 서예의 중주국으로 되어 있는데 캘리디자인의 출범으로 디지털에서는 우리가 중주국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